

성별에 따른 여가생활에 관한 연구

김 영 숙[†]

경성대학교 생활경영학과 교수

A Study on Leisure Life in Accordance with Gender

Kim, Young-Sook

Dept. of Human Ecology, Kyungsu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necessary for improving the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eisure life and thereon propose better leisure life programs in accordance with gender. For the purpose, this researcher made a questionnaire survey of 560 persons between July and December 2003 to know the trend and satisfaction of their leisure life in accordance with their gender.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below :

First, the extent to which the surveyed persons participated in leisure life was highest in terms of other leisure activities, followed by self-development, viewing activities, sports activities and journey in order. The satisfaction of leisure life participation by those surveyed persons was scored 3 or over in average, meaning 'generally satisfied'. The time of leisure life participation was most spent in other leisure activities and self-development. Expenses of the participation were highest in terms of other leisure activities, followed by self-development and viewing activities in order.

Second, differences in sub-areas of leisure life were analyzed in accordance with gender to show that the degree and time of participation in viewing activities and self-development, expenses of sports activity participation and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journey and other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opposite sexes which were surveyed here. Men were higher in the degree, time and expenses of the participation than women.

Third, effects of gender on the satisfaction of leisure life as a whole were determined here to show that men were higher in such satisfaction when they were more satisfactorily participating in sport activities, while in case of women, when they were spending more time in sport activities. Women showed a higher satisfaction of leisure life as a whole when they were more frequently and satisfactorily participating in other leisure activities.

[†] Corresponding author : H.P : 011-862-8788. e-mail : yskim@star.ks.ac.kr

Based on these results, the researcher proposed effective leisure life programs in accordance with gender.

Key Words : the degree of participation, the satisfaction of participation, the time of participation, expenses of participation, leisure life satisfaction

1. 서 론

현대사회는 인터넷의 발달과 다양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여유시간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5일제 근무로 인해 성인들에게 있어서 개인에게 부여되는 자유시간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자유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누리느냐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그 자유시간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의미는 비슷할 것이다. 즉, 주5일 근무는 단순히 이들을 쉬는 것에 끝나지 않고 단조로운 삶에 변화를 불러오고 삶에 지친 자들에게는 새로운 의욕과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증대된 개인의 자유시간에 의미를 부여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와는 다른 개념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유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점차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여가(餘暇, recreation)란 말 그대로 “재(re-) 생산(creation)”을 뜻하는 것으로, 여가(餘暇)는 시간적인 개념이 강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여가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육체적 활동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개념이다. 여가를 잘 활용하면 생활 속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자기개발의 기회도 가질 수 있으며, 사교활동의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각박한 도시생활 속에서 소원해지기 쉬운 가족·친지간의 인간관계를 회복시킴과 동시에 피로에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시켜 생업 능력의 향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5일 근무제 도입 이후 국민의 여가 선용 여부는 국민 개개인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또한 미래사회에서는 여가가 더욱 중요한 생활영

역이 될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일반적인 전망에 대하여 최근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진 다수의 조사 연구에서도 돈을 더 벌기보다는 여가를 즐기겠다는 점에서 여가를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외숙, 1996). 그러한 경향은 젊은 연령층일수록 여가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신세대소비자의 여가욕구가 매우 강하다는 면에서 여가생활이 우리사회에서 한층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가는 인간 표현의 한 형태이며, 인간으로서 더 큰 깨달음을 얻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발전, 자아만족, 복지의 제공자로서 기여하며, 또한 개인의 심리적, 예술적 소양을 개발하고 다양한 인간 활동의 창조적 학습장을 제공하며 국민정신문화의 성장을 촉진시키기도 한다. 특히, 여가는 휴식이나 노동력 재생산 및 자기실현의 기능을 하여 그 자체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생활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와 더불어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여가활동이 양적으로 팽창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여가활동의 만족도는 낮아서 여가활동의 질적인 측면에서 그 수준이 향상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 현대사회의 여가는 고대의 카니발과 같이 일상에서 벗어난 파격적인 축제문화가 존재하지 않고, 전문적인 오락 제공자들이 사회적으로 매우 커다란 직업군을 형성하며 일반 대중들은 단지 수동적으로 보고 듣기만 하는 경향이 증대하였다. 또한 이러한 대중매체의 발전과 더불어 생성된 상업화된 대중문화는 여가나 모든 문화생활에서 유행처럼 지역적·계층적 차별성을 없애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남성과 여

성은 다르기 때문에 여가생활 또한 원초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그들의 여가는 남성과는 다른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과거에는 단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여가라든지 자유시간에 대한 의미가 그리 중요하지 않았으나 이제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대되면서 여성들도 그들만의 자유시간이나 여가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성에게 있어서 특별한 여가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이나 남성을 위한 차별화된 여가활동이 없으며, 여성에게 있어서는 남성보다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제약이 많이 따르는 실정이다.

또한 개인의 추구하는 행복의 삶과 질이 다르며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남녀가 똑같은 여가생활을 통해 동일한 만족감을 느낀다고는 볼 수 없다. 각각의 특성에 맞는 여가활동분야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사료된다.

최근 여가서비스산업 업계가 지향하는 마케팅 활동의 추세에서도 이용자 지향적으로 변화하면서 이용자의 구매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하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용고객의 구매의사결정과정과정에 대한 분석을 마케팅믹스, 환경적 요인, 개인적 영향요인, 정보처리과정 등과 같은 개념들과 접목시킨 연구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 이렇듯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다수의 연구들이 개인의 직업, 가정, 퇴직, 생활 등에 대한 만족도를 여러 측면에서 평가하였고 (Brayfield & Rothe, 1951, Hulin, 1969, Oberle, 1971, Greenhaus, 1974). 국내에서는 여가활동유형과 여가만족(임번장·정영린, 1995, 안혜영, 1995), 성격특성과 여가활동 유형 및 여가만족 간의 관계(송강영·김홍설, 1996) 등의 연구가 있었다.

이렇듯 대부분의 연구들은 여가만족도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명력을 높이고자 하였을 뿐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여가활동 연구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여가기능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 여가활동 유형이 선택될 것이라는 개인 가치적/심리적인 접근을 시도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여가생활에 관한 연구를 성인소비를 대상으로 첫째, 여가생활의 전반적인 경향을 분석한다(각 유형별 참여정도, 만족도, 시간사용, 비용지출), 둘째, 성별에 따른 여가생활의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성별에 따른 여가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파악하고, 넷째, 성별이 여가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개인의 성별에 맞는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여가생활의 프로그램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한 여가만족도를 높임으로써 개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여가의 개념적 고찰

근대자본주의가 발달해 가는 과정 중에 여가는 노동의 수단이 되고, 개인은 금욕과 노동을 통해서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는 청교도주의라는 형태로 체계화되고 자본주의와 산업사회를 형성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의미로 자리잡게 된 여가의 개념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연한 것이 되었다. 한편 현대에 와서 여가의 개념이 일반에게도 중요한 개념으로 된 것은 노예적인 장시간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에서 비롯되었다.

Veblen(1953)은 사회계층의 상징으로 여가를 보았는데 그는 유럽의 중세와 문예부흥기 및 산업사회에 주목하여 여가를 가지고 잘 이용하는 것이 바로 상류계층의 상징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Veblen, 1953). 즉,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여가를 누린다는 것은 부의 증거이며 사회계층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Veblen의 연구 이후 사회학 분야에

서 사회계층, 직업, 인종 등에 따라 여가를 분류하고 개념화시키는 연구가 이루어져왔고 사회계층수준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특히 어느 정도의 교육수준을 필요로 하는 활동에 참여할 때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aplan(1960)은 시간적 정의에 있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의 불변적이고 자발적인 여가, 실업자의 일시적이고 비자발적인 여가, 고용자의 휴일 또는 유희 시에 볼 수 있는 정기적이고 자발적인 여가, 고용자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일시적인 노동력의 상실과 장애자의 영속적인 노동력 상실로 인한 여가, 그리고 고령자의 자발적 퇴직으로 인한 여가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살펴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똑같은 자유시간이라 해도 주체에 따라 그 의미와 형태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미국의 여가 철학자 Murphy(1987)는 인간행동의 한 양상이라 할 수 있는 여가형태도 행동양식의 일반적 범주를 벗어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여가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의 해석방식에 준하여 이해될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는 구조기능론적 해석으로 인간행동이란 인간 자신의 주체적 행동의사와 관계없이 사회적 제반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여가란 삶의 총체라고 하기보다는 삶의 일부분으로서 여가의 객관적 해석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행동론적 해석으로 여가경험의 추구도 개개인의 주관적 행동 또는 목표설정애 따라 결정되며, 여가란 삶 그 자체를 구성하는 요소이며, 개인적으로 삶의 목표를 설정해서, 개개인의 생활양식의 범위 안에서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견해로서 여가의 고전적 해석과 여가의 심리학적이고 주관적 해석을 말한다.

셋째는 인간행동의 총체론적 해석으로 외적보상은 인간의 의지와 일치될 경우에만 그 학습 이론적 효능이 발휘된다는 견해이다.

김의숙(1993)은 여가는 1일 생활 중에서 생존을 위해 필요로 하는 시간을 뺀 남은 시간 혹은 자유로운 시간으로 인식하였다. 이와 같이 여가는 생존을 위한 구속에서 해방된 '시간'과 그 시간 내에 행

해진 '활동'을 함께 의미하는 개념이 된 것이다. 이러한 이론들을 종합해 볼 때, 여가(leisure)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시간(예를 들면, 먹고, 자고, 배설하고, 일하고, 학생의 경우 공부하는 시간 등)외에 자유롭고 여유있는 한가로운 시간을 말하며, 참가자로 하여금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윤택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발전을 위해 행해지는 자발적인 활동(레크리에이션)을 포함하는 활동이다.

오늘날의 여가사회학자들은 여가의 양과 질적인 변화추세가 반드시 정의 방향으로 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노동시간의 감소와 개인의 가용시간 증대를 들어 여가를 긍정적으로 조명하기도 하지만, 여가의 질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다른 일각에서는 현대의 여가가 점차 반여가 쪽으로 치닫고 있다며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기도 한다. 여가를 시간개념으로 보는 대부분의 여가 사회학자들은 명시적이건 암묵적이건 여가의 양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대표적인 여가학자인 듀마제디에(Dumazedier)는 '끊임없는 기술진보의 산물로서 여가는 공업화의 진전과 기술진보에 의해 시간과 가용지출액면에서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사회의 여가에 대한 이들의 입장과는 반대로 호이징하(Huizinga), 갓비(Godbey), 린더(Linder), 존슨(Johnson) 등은 여가의 질적 측면에 주목하여, 오늘날 참다운 여가나 놀이는 점차 사라져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린더는 오늘날의 경제성장이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온 반면에 반대로 시간기근 현상을 초래하였다고 본다. 즉, 경제성장으로 1인당 생산이 증가하고 자본의 집약도는 높아졌지만, 그 혜택이 개인에게 돌아가기는 커녕 오히려 재산의 유지와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갓비의 반여가론(anti-leisure hypothesis)에도 여가의 질적인 쇠퇴에 대한 우려가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지난 10여년 동안에 나타난 사회적 현상은 시간기근 또는 시간심화(time-deepening)로서, 이 때문에 오늘날의 여가행위는 심하게 시간을 의식하고,

의적인 제약을 받으며, 자율성이 감소된 특성을 띠고 있으므로 현대의 여가는 점차 '여가답지 못한(unleisurely) 반여가'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잣비의 견해에 따르면, 서구사회에서 앞으로 여가에 대한 관심사는 여가시간의 증대나 노동 후의 휴식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 중심을 이루게 될 주된 관심사(central life interest)를 추구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시민들의 피상적인 행동만 관찰해서는 여가 또는 노동 여부를 판정할 수 없게 되므로, 행동 이면에 숨겨있는 의식상태에 따라 여가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잣비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 난다면, 이는 현대 공업사회의 주요한 특징인 여가와 노동이라는 분명한 이분법이 다시 여가와 노동이 일체화된 전통사회의 통합개념으로 돌아감을 의미한다.

여가추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서 표준화(standardization), 집중화(concentration)를 고찰해 보면, 최근 선진 IT 산업사회에서는 표준화와 집중화 추세가 쇠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대중매체, 대중문화, 대중여가, 대량교육, 프랜차이즈 시스템 등에서 볼 수 있는 사회, 경제, 문화를 표준화 경향과 인구의 대도시집중, 대단위 유흥시설, 해외여행의 패키지화 등에서 볼 수 있는 집중화 경향이 점차 쇠퇴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표준화와 집중화의 부작용으로 인해 개인의 독특한 개성이 무시되고, 모든 것이 획일화되어 생활을 식상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평준화된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개인과 기관의 개성이나 특성이 소멸된 까닭에 모두를 평범한 인간이나 기관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다. 이와 같은 물개성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늘날 선진 사회에서는 표준화-집중화 추세에 역행하는 전문화-분산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나 문화, 스포츠, 또는 여가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정보매체의 등장, 다양한 기능을 가진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 해외여행의 일반화, 독신의 증가와 가족개념의 붕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등이 바로 그런 경향의 몇 가지 예이다. 미래학자 토플러(Toffler)는 벌써부터 이러한 경향을 예고하면서, 이를 '탈 표준

화 시대'라고 명명한 바 있다. 현대사회의 여가를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대중매체이다. 오늘날의 대중문화를 가능하게 한 것이 TV와 신문 등의 대중매체라고 한다면, 그 대중문화의 한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여가 역시 대중매체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사는 점차 정치나 사회문제로부터 경제나 문화 또는 스포츠 등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가나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들의 일상생활 또는 취미와 관련 있는 분야로 관심이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는 문화와 스포츠 등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사회통계조사, 통계청, 2003)

2. 여가활동의 유형

여가활동에 관한 분류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가활동이 상호 유사한 내면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각 활동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분류기준 또한 다양하기 때문이다(김정근,1998) 조명환·안재두(1993) 등은 여가활동을 여가활동 행위자 측면과 행위의 대상적 측면으로 구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Roger Sue(1980)는 여가활동에 대해 '경험되어진 모든 활동'을 여가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여가와 여가활동을 구분하여 "여가활동은 각 개인의 열망이나 취미에 관련되어 자유롭게 선택된 활동을 의미한다. 반면에 여가개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여가시간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것이고, 둘째, 각 개인이 실행하고 있는 활동에서 자유감을 회복시켜주는 것과 자유시간에서 기인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라고 하였다.

Ragheb(1980)은 여가활동을 대중매체형, 사회적 활동형, 야외활동형, 스포츠활동형, 문화활동형, 취미활동형 등 6개로 분류하고 다시 이 유형들을 42개의 세분된 종목으로 분류하였으며, Iso-Ahola(1980)는 여가활동 유형을 스포츠활동(active sport), 사교활동(social work), 공작활동(crafts work) 등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Chubb(1981)은 여가활동은 여가주체의 주관적 행동을 의미하며, 또한 그 활동은 여가의 객체 및 매체와의 밀접한 상호작용이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문화체육부는 여가활동 유형별 세부활동 종목으로 스포츠 활동 30개, 취미/교양활동 21개, 관람/감상활동 12개, 사교활동 13개, 관광 행락 활동 12개, 놀이/오락활동 15개 종목 등으로 세분하여 분류하였다(문화체육부, 1995). 이와 같은 점에서 여가활동은 소비자행동의 하나로 볼 경우에는 여가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사결정단위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여가현상을 하나의 시스템적 작용으로 본다면, 여가활동은 여가주체와 그 외 행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수간의 체계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의 영역을 관람활동, 스포츠, 자기개발, 여행, 기타활동의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3. 여가관련 선행연구고찰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개인적인 변수들을 위주로 해서 여가생활전반에 관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종표 외(2004)의 연구에서는 남녀의 여가생활의 시간을 측정한 결과, 여성의 경우보다는 남성의 경우가 많은 시간을 여가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 또한 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애련·한내창(1997)에 의하면 남성들은 교양활동, 취미활동, 관람·청취, 그리고 어울려 놀기를 즐기는 반면, 여성들은 가족중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연·변원태(2003)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자직장인에 있어서는 관람·감상부분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스포츠 부분이었으며, 여성직장인에 있어서는 관람·감상부분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취미·교양 부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남녀모두 관람·감상으로 대부분의 여가활동을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신체 활동을 좋아하는 남자가 스포츠 부분에 있어 높은

참여를 보이는 반면 여자는 집안가꾸기, 문예활동, 원예, 요리 등 취미·교양 부문에 높은 참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미자(1997)의 연구결과에서는 여자노인은 종교활동에, 남자노인은 사회단체활동, 사교활동에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최장호·박원숙(2003)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여가 참가정도에 차이를 보인 것으로, 여가활동유형 중 사교·취미활동, 스포츠, 야외활동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여가활동 유형에서 남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모든 여가유형이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여가와 관련된 여러 연구에서, 여가활동의 장애요소로서 여가비지출이 영향요소로서 작용하였고(김의숙, 1993; 표영희, 1996; 강석희, 1999), 여가활동의 여가선호도와 실제 참여도사이의 차이의 영향요소로서 여가비용이 작용한 점(홍성희·문숙재, 1991)으로 보아 여가비용에 대한 제약은 소비자의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위축시키고 소극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를 증가시켰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것은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에서 불만족하는 경우 여가만족도가 가장 낮은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가비용의 경우 여가만족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시간사용과 여가비지출을 투입요소로 하여 여가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여가비용이 높을수록 여가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여가활동 참여도, 여가시간, 여가비용, 여가생활 만족도와와의 인과적 관계를 검증한 이정연 외(1997)의 연구에서는 여가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여가비용, 자기개발적 활동, 주부의 취업유무, 소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숙(1997)의 연구에서는 부부의 여가만족도의 영향요인은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이 길수록 여가비용이 많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찰들을 종합해 볼 때, 주5일제 근무의 확산으로 인한 여가의 패턴과 소비지출이 변화하는 현시점에서 소비자의 여가비지출은 어느 정도이며, 여가비지출의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연구(김영숙, 2002)는 있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은 여가에 대한 경제적 접근은 많이 이루어졌지만 심리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에 따른 여가생활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가생활에 관련된 변인으로 여가유형별 참여정도, 여가만족도, 시간사용, 여가비지출을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이들이 종속변수인 여가생활의 전반적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 1) 여가생활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 2) 성별에 따른 여가생활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 3) 성별에 따른 여가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 4) 성별이 여가생활에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측정도구

측정도구인 설문지는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여가생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크게 관람활동, 자기개발활동, 스포츠활동, 여행활동, 기타여가활동으로 구분하고 각 활동에 속하는 구체적인 행위 즉, 관람활동활동에 해당하는 요소로 전시회, 음악회, 공연, 연극, 영화, 자기개발활동으로 공예, 서예, 주부대학, 외국어회화, 컴퓨터강좌, 독서, 신문잡지구독, 실내장식, 꽃꽂이, 노래, 악기연주, 그림, 요리, 스포츠활동으로서 등산, 테니스, 에어로빅, 요가, 골프, 헬스, 리프팅,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실내암벽, 댄스, 산보, 볼링, 단전호흡, 여행활동으로서 야외나들이, 국내여행, 국외여행, 기타활동으로서 가족과외식, 정원화초가꾸기, 쇼핑, 사우나, 가족간

대화, 집안꾸미기, 컴퓨터게임, 낮잠, 맛기행, 친척방문 및 내방, 친구와의 교체, 종교활동, 각종모임, 음악감상, 텔레비전 라디오청취 등으로 구분하였다. 각 행위별 참여유무, 참여시만족도, 참여시간, 참여에 드는 월비용으로 구분하여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둘째, 여가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관한 문항은 현재 여가생활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가, 하루평균 여가사용시간에 대해 만족하는가, 월 평균지출 여가비용에 만족하는가, 여가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있는가, 현재 여가활동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의 5문항으로 5점리커트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셋째, 인구 통계적 특성으로 연령, 성별, 결혼상태, 학력, 가족구성, 직업, 주5일제 근무유무, 가족의 생활주기 등으로 구성하였다. 여가생활에 관한 설문에서는 관람활동의 참여정도와 만족정도에 관한 5문항, 자기개발을 위한 취미활동 참여정도와 만족도에 관한 내용의 13문항, 스포츠활동 참여정도와 만족도에 관한 내용의 14문항, 여행의 참여정도와 만족도에 관한 문항, 그리고 기타 여가생활유형과 만족도에 관한 내용의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성인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3년 7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580부의 설문지를 회부하였으며, 분석에 적절한 560부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백분율과 여가생활의 전반적 경향은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성별에 따른 여가생활의 차이는 평균값과 t-test를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여가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평균값과 t-test를 사용하였고, 성별이 여가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MRA)를

실시하여 B값과 β (베타)값을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먼저 성별에서는 여자가 54.1%, 남자가 45.9%로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40대가 40.7%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39.6%, 30대 19.6%, 50대 9.5%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유무에서는 기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60)

변수	집단	N	%
성별	남	256	45.88
	여	302	54.12
연령	20대	222	39.64
	30대	110	19.64
	40대	228	40.71
	50대	53	9.46
결혼 유무	기혼	317	56.91
	미혼	240	43.09
학력	고졸이하	173	31.51
	대졸이하	262	47.72
	대학원졸 이상	114	20.77
가족 관계	3대 이상 함께 거주	78	14.63
	부부+자녀	430	80.68
	부부	25	4.69
직업	전문/사무직	97	17.83
	교원/군인/관리직	44	8.09
	판매/서비스/생산직	57	10.48
	주부	154	28.31
	학생/기타	192	35.29
직장 주 5일 근무제 실시 유무	예	140	36.36
	아니오	245	63.64
자녀	막내자녀 취학 전	71	15.50
	막내자녀 초중고취학 중	147	32.10
	막내자녀 대학재학/취업	121	26.42
	한 자녀 이상 결혼	119	25.98

*missing data로 인해 각 변수별 합계의 차이가 있음.

혼이 56.9%로 많았고, 미혼이 43.1%로 나타났으

며, 학력에서는 대졸 이하가 47.7%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 이하 31.5%, 대학원졸 이상 20.8%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에서는 부부+자녀가 80.7%로 가장 많았으며, 3대 이상 함께 거주 14.6%, 부부 4.7%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에서는 학생이 35.3%로 가장 많았으며, 주부가 28.3% 전문/사무직 17.8%, 판매/서비스/생산직 10.5%, 교원/군인/관리직 8.1%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 주 5일 근무제 실시유무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집단이 63.6%였으며, 실시하는 집단은 36.4%로 나타났다. 자녀는 막내자녀 초중고취학 중이 32.1%로 가장 많았으며, 막내자녀 대학재학/취업 26.4%, 한 자녀 이상 결혼 26.0%, 막내자녀 취학 전 15.5%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여가생활의 전반적인 경향

여가생활의 전반적인 경향은 <표 2>와 같다.

먼저 여가생활의 참여정도에서 관람활동은 최대 5개 중 평균 2.20개 참여해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자기개발은 최대 13개 중 평균 3.28개로 나타나 다른 분야에 비해 참여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스포츠활동은 최대 14개 중 평균 1.96개로 스포츠활동도 다른 분야에 비해 상당히 참여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은 최대 3개 중 평균 1.56개로 중간 이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는 최대 15개 중 평균 8.81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가생활의 참여만족도는 관람활동은 최대 5점 중 평균 3.63점으로 보통수준 이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개발은 최대 5점 중 평균 3.67점, 스포츠활동은 최대 5점 중 평균 3.42점, 기타는 평균 3.64점으로 보통수준 이상으로 나타났고 여행은 최대 5점 중 평균 3.95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각 여가생활에 따른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나 보통수준 이상으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여가생활의 참여시간은 관람활동의 경우 한 주에

최대 16.25번 중 평균 0.48번 하는 것으로 나타나 1번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발은 한 주에 최대 29.77번 중 평균 9.49번으로 나타났으며, 스포츠활동은 한 주에 최대 17.50번 중 평균 2.80번으로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은 한 주에 최대 8번 중 평균 0.51번으로 나타나 1번이 채 안 되었으며, 기타는 한 주에 최대 77.0번 중 평균 20.52번 정도로 1/3정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여가생활의 참여에 따른 시간할애는 자기개발이나 일상 생활속에서 할 수 있는 보편적 여가생활들인 기타활동 등에 많이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가생활 참여비용은 관람활동에서는 최대 710,000원 중 평균 33,517원 정도로 나타났으며, 자기개발 참여비용은 최대 1,080,000원 중 평균 57,330원으로 나타났고, 스포츠활동 참여비용에서는 최대 650,000원 중 평균 31,120원으로 적게 나타났으며, 여행 참여비용은 최대 17,000,000원 중 평균 207,177원, 기타 참여비용은 최대 3,220,000원 중 평균 257,681원으로 나타났다.

< 표 2 > 여가 생활의 전반적인 경향

변 수	참여정도		참여만족		참여시간		월평균 참여비용*	
	평균 /최대값	표준편차	평균 /최대값	표준편차	평균 /최대값	표준편차	평균 /최대값	표준편차
관람활동	2.20 /5.00	1.55	3.63 /5.00	0.62	0.48 /16.25	0.91	33,517.11 /710,000.00	71,004.94
자기개발	3.28 /13.00	2.00	3.67 /5.00	0.28	9.49 /29.77	5.99	57,330.82 /1,080,000.00	100,569.66
스포츠활동	1.96 /14.00	1.68	3.42 /3.71	0.22	2.80 /17.50	3.00	31,120.19 /650,000.00	61,627.02
여행	1.56 /3.00	0.94	3.95 /5.00	0.66	0.51 /8.00	.78	207,177.46 /17,000,000.00	892,594.99
기타	8.81 /15.00	2.90	3.64 /5.00	0.50	20.52 /77.00	8.93	257,681.81 /3,750,000.00	373,386.35

* 단위: 원

3. 성별에 따른 여가생활의 차이

성별에 따른 여가생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여가생활 중 관람활동에서는 관람활동 참여정도, 참여시간이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관람활동 참여정도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높았으며, 관람활동 참여시간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높게 나타났다. 즉, 참여유형은 여성이 많으나 참여시간은 남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개발활동에서는 자기개발 참여정도와 자기개발 참여시간이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자기개발 참여정도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높았으며, 자기개발 참여시간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자기개발 참여정도나 참여시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포츠활동에서는 스포츠 참여비용에서만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스포츠 참여비용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이 좀 더 많은 비용을 스포츠활동에 투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행활동에서는 여행 참여정도와 여행 참여비용

이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여행 참여정도와 여행 참여비용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기타여가활동에서는 기타여가활동 참여정도만이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기타 여가활동 참여정도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높은 참여수준을 보였다. 기타 여가활동들이 대부분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보편적 여가생활들로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여가활동 유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성별에 따른 여가생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다른 요인보다는 참여정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냄에 따라 성별은 참여만족이나 참여시간, 참여비용보다는 참여유형이나 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성별에 따른 여가생활 참여 유형이나 정도를 분류하는 것이 여가생활에 따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표 3 > 성별에 따른 여가생활의 하위영역별 차이

변 수	집 단	관람활동 참여정도	관람활동 참여만족	관람활동 참여시간	관람활동 참여비용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성별	남자	1.70	3.45	0.61	32242
	여자	2.60	3.68	0.38	34698
	t값	-7.21***	-1.29	2.81**	-0.42
변 수	집 단	자기개발 참여정도	자기개발 참여만족	자기개발 참여시간	자기개발 참여비용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성별	남자	2.76	3.23	8.86	49225
	여자	3.71	3.79	10.01	64483
	t값	-5.87***	-3.15	-2.27*	-1.86
변 수	집 단	스포츠 참여정도	스포츠 참여만족	스포츠 참여시간	스포츠 참여비용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성별	남자	1.85	3.29	2.70	36604
	여자	2.07	3.48	2.89	26545
	t값	-1.55	-0.66	-0.74	1.92*
변 수	집 단	여행 참여정도	여행 참여만족	여행 참여시간	여행 참여비용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성별	남자	1.29	3.89	0.48	132098
	여자	1.77	3.98	0.53	272409
	t값	-6.22***	-0.49	-0.67	-1.98*
변 수	집 단	기타 참여정도	기타 참여만족	기타 참여시간	기타 참여비용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성별	남자	8.06	3.87	20.61	265170
	여자	9.44	3.61	20.41	253090
	t값	-5.73***	0.45	0.24	0.38

*p <.05 **p <.01 ***p <.001

4. 성별에 따른 여가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의 차이

성별에 따른 여가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성별에 따른 현재여가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오직

알찬 여가 시간정도만이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는 알찬 여가 시간정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인 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성별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여가생활의 유형이나 다른 외적인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성격유형에 따른 여가생활

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의 차이에서는 하루 중 여가 시간에 할애하는 정도에 대한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관감 정형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감각판단형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직관감정형은 여가생활을 위한 시간사용을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감각판단형은 여가생활을 위한 시간사용에 그다지 만족하지 않는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 표 4 > 성별에 따른 여가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의 차이

변 수	집 단	현재여가 생활만족도	하루여가 할애시간만족도	한달여가 비용만족도
		평균	평균	평균
성별	남자	3.18	2.93	2.85
	여자	3.19	3.03	2.97
	t값	-0.19	-1.16	-1.40
변 수	집 단	알찬 여가 시간정도	현재여가활동 적합정도	전체여가 생활만족도
		평균	평균	평균
성별	남자	2.77	3.11	2.97
	여자	2.95	3.24	3.08
	t값	-1.95*	-1.49	-1.56

*p <.05 **p <.01 ***p <.001

5. 성별이 여가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본 장에서는 성별로, 여가생활에 따른 여러 요소 중 어떠한 측면이 여가를 통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으로써 여가생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유용한 방안은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남성의 여가생활이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성별 중 남성만을 대상으로 여가생활이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여가생활 참여정도에서는 스포츠 참여정도

가 높을수록 여가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7%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가생활 참여만족에서는 어떠한 변수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여가생활 참여시간에서는 스포츠 참여시간이 많을수록 여가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7%로 나타났다. 여가생활 참여비용에서는 여행에 관한 참여비용이 많을수록 여가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여가생활 전체적으로 설명력은 17.0%로 나타났고, 스포츠 참여만족과 참여시간이 많을수록 여가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은 여가생활에 따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정도나 참여만족, 참여수준, 참여비용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고, 여가생활 유형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포츠관련 활동을 통한 시간이나 참여정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고 평가해 볼 수 있다.

< 표 5 > 남성의 여가생활이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종속변수 독립변수		여가만족도				
		남자 B(β)	남자 B(β)	남자 B(β)	남자 B(β)	남자 B(β)
참여 정도	관람활동	0.073(0.025)				-0.374(-0.131)
	자기개발	0.171(0.064)				0.296(0.116)
	스포츠	0.405(0.168)*				-0.357(-0.152)
	여행	0.289(0.073)				-1.375(-0.489)
	기타	0.036(0.026)				-0.139(-0.106)
참여 만족	관람활동		0.277(0.075)			0.510(0.14)
	자기개발		0.509(0.069)			0.246(0.034)
	스포츠		1.082(0.143)			1.622(0.219)
	여행		0.270(0.092)			1.604(0.551)*
	기타		0.222(0.047)			0.857(0.185)
참여 시간	관람활동			0.275(0.093)		0.143(0.050)
	자기개발			0.039(0.059)		-0.029(-0.046)
	스포츠			0.242(0.194)**		0.182(0.148)*
	여행			0.095(0.021)		0.004(0.001)
	기타			0.002(0.006)		-0.027(-0.077)
참여 비용	관람활동				0.07E-06(0.107)	0.05E-07(0.084)
	자기개발				9.41E-07(0.017)	-0.06E-07(-0.122)
	스포츠				0.02E-06(0.051)	5.33E-08(0.001)
	여행				0.01E-06(0.126)*	9.52E-07(0.095)
	기타				-4.56E-07(-0.047)	-2.49E-07(-0.026)
상수		12.835***	12.543***	13.581***	14.432***	13.021***
R2(수정된 R2)		0.072(0.053)	0.095(0.076)	0.068(0.049)	0.036(0.017)	0.170(0.093)
F-value		3.81**	5.02***	3.63**	1.87	2.23**

*p<.05 **p<.01 ***p<.001

2) 여자의 여가생활이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성별 중 여성만을 대상으로 여가생활이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여가생활 참여정도에서는 관람활동 참여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람활동 참여정도가 많을수록 여가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12.3%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가생활 참여만족에서는 기타여가활동에서 만족할수록 전반적인 여가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9.4%로 나타났다. 참여시간에서는 스포츠와 여행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포츠나 여행관련 참여시간이 많을수록 여가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참여비용에서는 스포츠활동 참여비용이 많을수록 여가생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여가생활 전반적으로 설명력은 26.9%였으며, 기타관련 참여정도가 많을수록 기타관련 활동 참여만족도가 높을수록 여가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여성의 경우도 참여정도, 참여만족도, 그리고 참여시간이나 참여비용과 같은 요소들이 여가생활에 따른 만족도를 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보다는 여가활동 유형이 여가생활 만족도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타여가활동의 참여정도, 만족도, 시간, 비용 등이 여성의 전체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각판단형은 다른 성격 유형에 비해 여가활동에 따른 만족감이나 시간사용에 따른 만족감이 낮은 편으로 여가활동 자체에 큰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는 성격유형임을 볼 때, 감각

< 표 6 > 여성의 여가생활이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독립변수		여가만족도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B(β)	B(β)	B(β)	B(β)	B(β)
참여 정도	관람활동	0.077(0.139)*				0.163(0.295)
	자기개발	0.001(0.004)				0.031(0.081)
	스포츠	0.057(0.116)				-0.369(-0.813)
	여행	0.127(0.124)				0.099(0.100)
	기타	0.033(0.104)				-0.152(-0.499)*
참여 만족	관람활동		0.062(0.088)			-0.113(-0.160)
	자기개발		-0.026(0.020)			-0.041(0.031)
	스포츠		0.157(0.092)			1.332(0.778)
	여행		0.075(0.109)			-0.058(-0.083)
	기타		0.291(0.254)**			0.930(0.804)**
참여 시간	관람활동			0.153(0.086)		-0.095(-0.051)
	자기개발			0.015(0.110)		0.001(0.012)
	스포츠			0.040(0.138)*		0.024(0.083)
	여행			0.146(0.120)*		0.114(0.120)
	기타			0.001(0.019)		-0.011(-0.121)
참여 비용	관람활동				-2.11E-07(-0.020)	-8.43E-07(-0.06)
	자기개발				-4.46E-08(-0.006)	-6.33E-08(-0.008)
	스포츠				0.02E-06(0.175)**	0.01E-06(0.125)
	여행				-1.39E-08(-0.018)	3.16E-09(0.004)
	기타				2.06E-07(0.087)	-8.97E-08(-0.033)
상수	2.201***	2.001***	2.619***	2.965***	2.192***	
R2(수정된 R2)	0.123(0.107)	0.194(0.173)	0.087(0.712)	0.038(0.021)	0.269(0.187)	
F-value	7.72***	9.63***	5.37***	2.23	3.28***	

*p<.05 **p<.01 ***p<.001

판단형은 여러 가지 종류의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하기 보다는 시간과 비용 지출이 상대적으로 낮고 스포츠활동과 같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본 연구에서는 성인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성별에 따른 여가생활과 그에 대한 만족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기초로 한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생활의 참여정도는 기타 여가생활(가족과의 여가, 쇼핑등), 자기개발, 관람활동, 스포츠활동, 여행의 순으로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생활의 참여만족에서는 모두 3점 이상으로 평균수준이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의 참여시간은 기타 여가생활 참여시간이 다른 여가활동 시간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의 참여비용은 여행, 기타 여가생활(가족과의 여가, 쇼핑등), 자기개발, 관람활동, 스포츠활동의 순으로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에 따른 여가생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참여 정도나 참여시간, 참여비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참여정도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관람활동과 여행관련 참여정도가 높았으며, 참여시간에서는 관람활동은 남성이, 자기개발 참여시간은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비용에서는 여행참여비용이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별에 따른 여가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의 차이에서는 전체 여가생활 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알찬 여가시간 정도에 대한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이 남성보다는 알찬 여가시간정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성별이 여가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남성은 참여정도, 참여시간, 참여비용이 전반적인 만족도에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특히 스포츠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만족도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여성은 참여시간, 참여만족, 참여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하였으나, 특히 기타관련 참여활동이 많을수록 전반적인 만족도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여가생활의 전반적인 경향과 만족도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각 성별의 효과적인 여가생활 프로그램의 방안을 제시해 보면 먼저 남성은 여가생활에 따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여가생활참여정도나 시간, 비용보다는 각 여가생활별 참여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스포츠활동을 통한 만족감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여성은 여가생활에 따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여가생활 참여정도나 참여시간, 참여만족도, 참여비용 모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으나, 이러한 요소보다는 여가활동 유형 중 특히 기타관련 여가활동 참여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선천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성별만을 중심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환경적인 변수 즉,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여가생활의 연구가 추가된다면 여가생활에 대해 보다 일반화된 분석이 가능할 것이므로 후속연구로서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여가활동 영역을 좀 더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여가활성화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별을 고려한 다양한 여가생활 프로그램의 교육개발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 성별은 여가생활에서의 참여정도나 참여시간, 참여비용보다는 참여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각 성별의 여가생활이 전반적인 여가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리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과 여성이 인간이 공존하는 현 사회

안에서 여가생활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여가생활을 차별화하고 특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한 여가생활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투고일 : 2004년 11월 20일

참고문헌

- 강석희(1999). 여가활동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익환(1998). 성격유형과 성취동기 - 독어독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구대학교
- 구순목(2001). 한국인의 여가소비 지출구조 분석.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광득(1990). **현대여가론**. 백산출판사, 서울
- 김문겸(1993). **여가의 사회학-한국의 레저문화**. 한울아카데미, 서울
- 김순미, 홍성희(1996). 여가비지출이 여가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 김성연, 박미석(2000). 도시 노인의 여가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 김영숙(1989). 한국가정의 가계소비유형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근(1998). 여가태도, 여가활동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21(2): 222-236
- 김윤숙(1995). 부산지역 중학생의 여가활동참여 실태조사 및 프로그램의 응용.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의숙(1991).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의숙(1993). 도시기혼여성의 여가장애지각과 여가활동참여와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 김의숙(1996).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정책. **대한가정학회지** 34(5)
- 김의숙(1997). 도시기혼여성의 여가선호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자원경영학회지** 창간호
- 김종표, 락이섭, 노영환, 김찬룡(2004). 노인의 신체적 여가활동 실태분석을 통한 활성화방안모색. **한국체육학회지** 43(1): 301-308
- 김영숙(2002). 성인소비자의 여가비지출과 여가만족도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5(2)
- 박상철(2001). 청소년의 여가활동 실태 및 유형과 여가활동 활성화방안 분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주현(1990). 여가선택행동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강영, 김홍설(1996). 성격특성과 여가활동 유형 및 여가만족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6
- 오현경(2001). 성격유형과 의복품질 평가. **한국심리학회지** 8(5): 85-97
- 이정연(1997). 여가활동이 여가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연, 심미영, 김영숙(1997). 여가생활만족도에 관한 인과관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3)
- 이현주(1985). 주부의 여가활동유형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부영(2000). **분석심리학**. 일조각
- 이계존(2000). 성인남자의 여가생활과 여가기능에 대한 분석. **여가레크리에이션 연구** 12
- 이기준, 장윤선(1992). 도시주부의 여가활동 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 이성철, 원형중(1993). 수원 지역 학생의 여가기능도 분석.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 학회지** 10
- 임번장, 정연린(1995).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만족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34(3)
- 조명환, 안재두(1993). 여가태도의 국제비교. **관광학연구** 17
- 최장호, 박영숙(2003). 대학생의 여가활동 유형과 생활만족에 대한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2(2): 347-356.
- 표영희(1996). 기혼여성의 가족생활주기와 여가활동과 여가제약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성희(1991). 주부의 여가활동과 여가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성희(1996). 주부의 가족여가활동 참여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20)
- 홍성희(1998). 노인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만족이

-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 Beard, J.G., Rahgeb, M.G.(1983). Measuring leisure motiv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5(3)
- Chubb, Michael(1981). One third of Our Time? An Introduction to Recreation Behavior and Resources. John Wiley & Sons, Inc
- Dardis, R., Derrick, F., Lehfled, A., Wolf, K.E(1981). Cross-section Studies of Recreation Expenditur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3(3)
- Dardis, R., Soberon-Ferrer, M., Patro, P.(1994). Analysis of Leisure Expenditur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4)
- Floyd, M.F., Shinew, K.J., McGuire, F.A., Noe, F.P.(1994). Race, Class and Leisure Activity Preferences: Marginality and Ethnicity Revisited.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2)
- Gould, Stephen J.(1991). Jungian analysis and psychological types: an interpretive approach to consumer choice behavior.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8:743-748
- Iso-Ahola, S.E.(1980). *The social psychology of leisure and recreation*. Wm. C. Brown Company, Iowa
- Kaplan, max.(1960). *Leisure in America* John wiley Sons, N.Y
- Murphy, J.F.(1987). *Concepts of Leisure*. In A. Graefe & S. Parker(Eds), *Recreation and Leisure: An Introduction Handbook*, Venture Publishing
- Ragheb, M.G.(1980). Interrelationships Among Leisure Participation, Leisure Satisfaction and Leisure Attitud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1)
- Shinew, K.J., Floyd, M.F., McGuire F.A., Noe, F.P.(1995). Gender, Race, and Subjective Social Class and Their Association with Leisure Preferences. *Leisure Sciences* 17(2)
- Talbot, M.N.(1989). Households with Expenditure for Entertainment Services. *Family Economics Review* 2(4)
- Tinsley, H., Tinsley, D.(1982), Psychological and Health Benefits of the Leisure Experienc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 Veblen, T.(1953). *Theory of the Leisure Class*. Macmilan, New York